스타 가족 전성시대

최근에는 스타와 가족이 함께 스스럼 없이 방송에 출연, '핏줄의 힘'을 뽐내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까지 꾸리고 있다. 리얼리티와 솔직한 매력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들도 개인사 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대중과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있다.

〈김지영·남성진 부부〉

남성진·김지영 라디오 함께 진행
차태현은 어머니와 목소리 연기
하하 어머니·김정은 동생도 인기

개그맨 이봉원·박미선과 배우 남성진·김지영 부부는 SBS 라디오(103.5㎒) 봄 개편과 함께 지난 1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봉원, 박미선의 우리집 라디오'(오후 8시 30분)에서 두 사람은 신·구세대의 소통을 위한 '대화가 필요해', 미워할 수 없는 '나의 반쪽'을 고발(?)하는 '적과의 동침' 등의 코너를 통해 특유의 입담을 선보이고 있다.

'김지영, 남성진의 좋아 좋아'(낮 12시20분)는 '생활 밀착형 수다 프로그램'. 생활정보·건강·교육·경제뉴스를 재미있는 리포팅 형식으로 전달하는 '나? 몰라 뉴스', 서민들의 애환을 다루는 코믹 콩트 '복길이와 영남이' 등의 코너로 꾸려졌다.

배우 차태현과 성우 최수민 모자는 오는 5월 개봉을 앞둔 애니메이션 '호튼'에 함께 출연, 목소리 연기를 펼쳤다.

KBS 11기 성우로 데뷔한 최수민씨는 '열네 살 영심이'(영심이), '달려라 하니'(나예리), '개구쟁이 스머프'(스머프, 아지라엘) 등 유명한 캐릭터를 소화했던 친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호튼'에서 차태현은 훈남 코끼리 호튼 역으로, 최수민씨는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캥커루 루디 엄마 역을 맡아 극중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는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들 모자는 지난달 10~14일까지 차태현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KBS 쿨 FM '안재욱, 차태현의 미스터 라디오'에 함께 출연, 추억의 만화를 패러디한 '듣기 평가! 퀴즈 브레이크' 코너를 진행한 바 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동생 등 스타의 '패밀리'도 방송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스타를 능가하는 끼와 외모 때문에 흥미로운 소재가 되고 있다.

하하 어머니 김옥정 씨는 네티즌으로부터 '융드 옥정'이란 애칭을 얻으며 '무한도전'(MBC)에서 제 7의 멤버로 거론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개그맨 이경규의 어머니도 지난달 9일 '일요일 일요일 밤에-간다 투어'(MBC)에서 이경규 생가 프로젝트 편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경규는 어머니 앞이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등 얌전한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진행된 '김정은의 초콜릿'에는 김정은의 친동생도 출연했다.

김정은이 이날 출연자인 이범수와 대화 도중 "초콜릿 첫 무대에서 내가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플루트 연주자로 나왔던 사람은 사실 내 동생이다"라고 말하면서 뒤늦게 밝혀진 것.

김정은의 여동생은 이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연예 게시판을 통해 김정은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축복받은 유전자'의 스타 가족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세종 초인적 인내력 처음엔 무섭기까지 했다"

'대왕 세종' 김상경

KBS 대하드라마 '대왕 세종'(극본 윤선주, 연출 김성근 김원석)의 주인공 김상경이 "'슈퍼맨' 같은 세종대왕을 슈퍼맨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고 싶다"면서 연기에 임하는 자세를 전했다.

1일 만난 김상경은 "세종대왕의 행적을 보면 인간 이상의 초인적인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무섭기까지 했다"고 세종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면서 "마치 슈퍼맨처럼 초인적인 존재인 세종을 슈퍼맨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대왕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면서 "그러나 세종도 처음부터 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인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그토록 훌륭한 성군이 되신 것임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상경은 이와 관련해 방영 초반 일부에서 제기된 캐스팅 논란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밝혔다.

그는 "캐스팅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나 아닌 누가 맡아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면서 "세종을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가 없었기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연기해 오히려 편했다"고 설명했다.

'대왕 세종'의 시청률이 초반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률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어서 그 때문에 속상한 것은 없다"면서 "정치 사극의 특성상 시청자가 보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청률보다 중요한 것은 '대왕 세종'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드라마로 기억됐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되고 시청자와 접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4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어웨이크	21만1천968	25만2천824
2	숙명	16만4천561	73만9천362
3	추격자	15만9천266	470만3천910
4	천일의 스캔들	14만2천941	41만4천663
5	스텝업 2:더 스트리트	13만1천131	91만5천130
6	10,000 BC	10만3천163	107만6천373
7	댄 인 러브	7만5천414	9만6천314
8	데스 디파잉:어느 마술사의 사랑	7만2천115	8만6천605
9	워터호스	2만2천570	7만4천373
10	그레이시 스토리	9천373	1만263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9.6
2	이산	MBC	28.0
3	엄마가 뿔났다	KBS2	27.3
3	조강지처클럽	SBS	24.7
5	행복합니다	SBS	23.9
6	특집SBS스포츠 국제축구 〈대한민국:북한〉	SBS	22.2
7	그래도 좋아	MBC	22.0
8	아현동 마님	MBC	21.1
9	온 에어	SBS	20.7
10	무한도전	MBC	20.0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원스 어폰 어 타임	코미디
2	세븐 데이즈	스릴러
3	베오울프	액션
4	식객	드라마
5	아메리칸 갱스터	액션
6	어거스트 러쉬	드라마
7	마을금고 연쇄습격사건	코미디
8	색, 계	드라마
9	바르게 살자	코미디
10	판타스틱4:실버서퍼의 위협	SF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미안해요	거미
2	원 모어 타임	쥬얼리
3	러브	브라운아이드걸스
4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
5	사랑해	마이티 마우스
6	만약에	소녀시대 태연
7	키싱 유	소녀시대
8	처음처럼	SG워너비
9	보고 싶은 날엔	박지헌
10	남자 때문에	주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팩스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팩스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팩스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